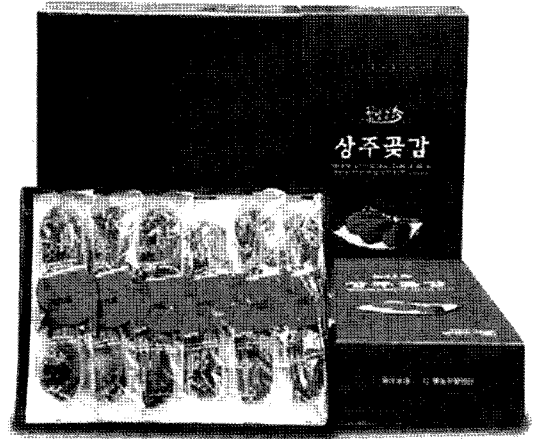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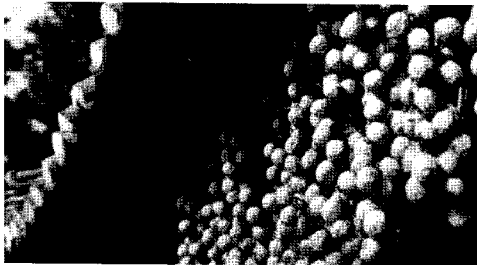
## 경상북도

Sangju



# 상주꽃감

경북 상주지역은 꽃감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기후조건과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어 예로부터 황실에 진상되는 명품 꽃감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상주에서 생산된 동시는 당도가 뛰어나고 씨가 적으며 과질이 부드럽고 맛이 뛰어납니다.



| 상표명 |  
상주꽃감

| 권리자 |  
상주꽃감발전연합회 영농조합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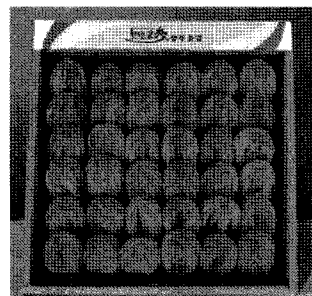
| 등록번호 |  
제 16호

| 상품분류 |  
제 29류 건식(꽃감)

연락처  
상주꽃감발전연합회 영농조합법인  
054-536-0907

**01 • 유래**  
상주감은 16세기 초부터 감이 자생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재배된 것은 기록상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이것은 대홍시이며 전국적으로 귀한 품종으로 1617년 이전부터 나라의 진공품이었습니다.

**02 • 특성**  
상주감은 짙은맛을 내는 동시로 동글게 생긴 감이라는 뜻인데 산봉우리처럼 동글고 소담스럽게 생겼다 해서 봉옥 또는 꽃감을 깎으면 분이 많이 난다고 하여 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시는 타닌 함량이 많고 물기가 적어 그냥 먹으면 단감에 비해 맛이 떨어지지만 대신 꽃감 재료로는 최적이라 할 수 있어 꽃감이 되면 짙은맛은 없어지고 당도가 원래 당도의 두 배까지 증가하여 다른 지방의 꽃감보다 한결 우수합니다.



# 전라남도

Gangjin



## 강진청자

청자는 한국문화예술사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자 예술품으로 비색상감무늬는 기술과 아름다움의 극치로 표현되고 있으며 인공을 떠난 천공의 경지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 상표명 |  
강진청자

| 권리자 |  
강진청자 협동조합

| 등록번호 |  
제 14호

| 상품분류 |  
제 21류 청자

연락처  
강진청자 협동조합  
061-434-0306

### 01 • 유래

청자는 중국에서 5~6세기경부터 생산했으며, 우리나라는 8~9세기경 생산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런 시기에 강진에서는 20km 떨어진 청해진에서 중국과 무역을 활발히 전개한 장보고 대사의 활동 영향을 받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에서 생산을 시작하여 14세기 쇠퇴기까지 고려 500년 동안 대구면 정수사에서 마산까지 6km의 산하에서 집단적으로 청자를 생산하였습니다.

### 02 • 특성

고려시대 귀족문화와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청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청자는 신라 시대의 토기가 점차 자기로 발전해 오다가 중국의 자기 기술을 받아들여면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귀족 문화의 발달과 맞물려 발전하여 고려 귀족 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경지를 이룩하게 됩니다. 고려자기에는 청자와 백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자가 가장 뛰어난 보통 고려자기를 고려청자라 부릅니다.

### 03 • 지리적 특성 및 명성

강진군은 남쪽은 바다와 가까워 해로를 통한 수송이 발달했고, 북으로는 크고 작은 산과 가까워 땀감이 풍부하고 또한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와 규석이 산출되어 도자기를 만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 대구면 일대는 9세기에서 14세기까지 고려청자를 제작하였던 지역으로, 우리나라 청자의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청자의 보고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1963년 국가사적 제68호로 지정되었고 이 지역의 청자가마 터는 총 188기로, 이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청자가마 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량입니다.

